10일 Market Index
코스피 2409.66 (-17.42)
코스닥 789.31 (-13.56)
금리(국고채 3년) 3.862 (+0.015)
환율(원·달러) 1316.80 (+6.70)

metro®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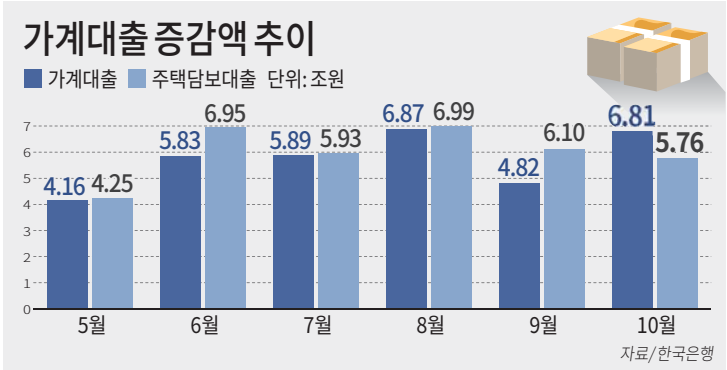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결론 임박
'뉴삼성' 빨라지나
03

가계대출 7개월째 ↑… DSR에 전세대출 포함시키나

금융당국, DSR 제도 손본다

내달 '스트레스 DSR' 발표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늘 듯
취약층 중심 적용예외 제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7개월 연속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DSR 적용 예외 항목을 취약층 중심으로 제한하고,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한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 5조8000억원을 포함해 한달 새 6조8000억원이 늘었다. 주담대 금리가 상단기준 7%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부동산 매매거래를 위해 주담대를 받는 차주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내달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발표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달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 방안을 발표한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실행시 변동금리를 택하면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주담대의 금리비중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돼 있다. 지난해말 기준 변동금리 비중은 56%, 고정금리는 20.9%, 순수고정금리는 23.1%다.

고정금리도 5년 고정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조다. 결국 끝까지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것은 정책모기지에만 있는 순수고정금리 23.1%로, 미국의 순수고정금리가 98.9%, 영국이 91.4%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 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할 경우 우선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주담대는 고정금리 대출이자가 변동금리 대출이자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주담대는 은행이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성 떠안기 때문에 가산금리 등으로 더 비싼 가격표를 붙인다. 앞으로 변동금리 주담대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 1%포인트(p)를 더할 경우 고정금리 주담대와 비슷하거나 높아져 고정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변동금리 주담대를 택할 시 1%p 금리를 더하면 대출한도가 감소해 가계부채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

◆ 취약층 중심 점진적 대출 제한

금융당국은 또 DSR 적용 예외항목을 취약층을 중심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역대 최대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12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 현수막이 걸려있다. 우리나라 최대 쇼핑축제인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일 개막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참여 기업만 2500여곳에 달하고, 기간도 20일로 길어졌다. /뉴시스

전국 물가, 서울이 끌어올려… 두 달째 4%대

통계청, 상승률 7개월째 1위
9월 4.1%, 지난달 4.2% 올라
동기간 전국평균 3.7%, 3.8%

서울이 최근 전국 물가의 오름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 달째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4월부터 매월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7개 시도 중 서울은 7개월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4월(전년동월비 4.1%)에 유일하게 4%대로 치솟은 이후 5월(3.8%), 6월(3.4%), 7월(2.9%)에 다소 둔화했다. 이후 8월(3.9%)에 가파르게 반등했고, 9월(4.1%)과 10월(4.2%)에 전국 평균물가를 한층 더 자극했다.

반면 전국 평균은 같은 기간 3.7%(4월)에서 3.3%, 2.7%, 2.3%, 3.4%, 3.7%, 3.8%(10월)로 서울 물가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작았다. 외식물가 고공행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에서 5000원~1만 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1인분 외식품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계탕 평균가격이 1만6846원, 삼겹살(200g)이 1만9253원 등이다. 짜장면(7069원)과 김치찌개백반(7846원), 칼국수(8962원) 등도 세종 등 타 지역과 비교해 크게 뛰었다. 서울은 지하철 요금도 9월 1250원에서 이달 초 1400원으로 인상됐다. 〈4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

社告

메트로경제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DX, 생존위한 필수적 혁신 4차혁명 산업계에 '이정표'

메트로경제는 오는 11월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란 주제로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은 4차산업혁명을 맞아 업무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작업을 가리킨다. 제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구축이나, 사무공간에서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대표적이다.

DX는 산업계에서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혁신 노력으로 받아들여진다. 단순 업무나 위험한 작업을 줄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작업 안정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DX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강조하는 이유다.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AI) 열풍도 DX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였다. LLM(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 더 쉽고 많은 업무 분야를 디지털화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기업들이 DX를 추진하는 상황이다.

특히 ESG 경영을 위해서도 DX는 필수적인 과제로 손꼽힌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원을 아끼는 노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디지털화를 통해 자원 소모와 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DX는 새로운 먹거리로도 각광받고 있다. 여러 기업들이 DX 솔루션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기업에 DX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DX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일순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인력 재배치 등 경영 전반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하는 탓이다. 비용과 규제 어려움이나 아직 방법을 모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포럼을 통해 DX가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해왔는지 확인하고, 성공적인 DX 전환 사례와 서비스를 살펴보며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산업계에 이정표를 제시한다.

■ 행 사 명 : 2023 뉴테크놀로지포럼
■ 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오후2~5시
■ 장 소 : 서울 종로구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 기조연설 :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
■ 강 연 :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오경석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제9회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metro®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민주 "윤 정권 가짜뉴스 타령은 언론 장악 칼춤…테러행위 멈춰야" /사진 뉴시스
▲정부 "내년 1월까지 기상가뭄 없어" …누적 강수량 평년 웃돌아

▲내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 '0원'…사업지연 위기
▲이준석 만난 '천아용인', 신당 논의… "앞으로 작전 이해 간다"

▲정두옥 애국지사 유해, 120년 만에 조국으로
▲여당 "민주, 정부 예산안 '묻지마 삭감' 예고…정책 발목잡기" /사진 뉴시스